

+ 어떤 영화예요?

<신을 믿습니까?>로 신앙인들에게 신앙고백 이후의 삶,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 질문하게 했던 존 건 감독이 신작 <예수는 역사다>로 돌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1,400만 부 이상 발행된 리 스트로벨 목사의 베스트셀러 도서 *The Case For Christ*가 원작이며,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신은 죽지 않았다 2> <신을 믿습니까?>의 제작진의 신작입니다. 실화에 기반한 감동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개봉 당시 북미 박스오피스 9위라는 놀라운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 영화 이해를 위한 TIP!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라고 기독교인에게 묻는다면 각양각색의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디모데처럼 경건한 집안에서 신앙이 형성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점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인정받는 기자이자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아이의 사고를 계기로 아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세례를 받고 남편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는 예수의 역사적 허구성을 파헤치는 취재를 시작합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며 이성과 자신의 열심으로 쌓아올린 인생의 성(城)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오해의 절벽이 되었고, ‘진실이라고 믿던 무신론’의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믿고 싶지 않던 증언’을 향해 한 발 내딛기로 결단합니다. 결국 견고했던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서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바로 열린예배로 유명한 윌로우크릭교회와 새들백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저명한 기독교 작가 리 스트로벨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리 스트로벨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반응 역시 살펴볼 부분입니다. 주변인들의 인내와 조언이 진리를 찾는 여정의 이정표가 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친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아내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유였듯이, 언젠가 그 기도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 영화 보고 나누기

1. 영화를 보고 어땠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장면, 인물, 대사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주인공 리 스트로벨처럼 기독교에 대해 과학적 지식이나 합리적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지금은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세요.

3. 주변에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4. 아내 레슬리와 리 스트로벨의 관계처럼,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 3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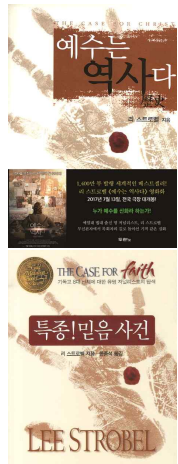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 함께 볼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한복음 20장 25-28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린도전서 13장 12절)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리 스트로벨, 『예수는 역사다』와 『특종! 믿음 사건』



『예수는 역사다』와 『특종! 믿음 사건』에는 영화에 다 담기지 않은 리 스트로벨 목사의 치밀한 지적 탐구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시카고 트리뷴' 등 언론인 출신다운 뛰어난 필력과 논리로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그의 저작이 많지만, 그중에서 『예수는 역사다』가 예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중점적으로 추적한다면, 『특종! 믿음 사건』은 악과 고난의 문제, 기적과 창조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구원의 배타성 등 기독교의 8대 난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답을 내리고자 맞섭니다. 두 책 모두 미국 복음주의출판협회 선정 'ECPA 골드 메달리언 북'을 수상, 뉴욕타임즈과 아마존닷컴에서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발행 문화선교연구원 집필 및 디자인 문화선교연구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하늬솔빌딩A) B1 필름포럼
문의 02-743-2535, www.cricum.org



공동체 나눔을 위한 '무비특가이드' vol.31
영화 <예수는 역사다>

- 믿음이 흔들린다면 -
-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과 관계가 힘겹다면 -

필름포럼+서울국제사랑영화제+문화선교연구원